

주간 경제·주식 이슈 분석

한국·미국 증시

2026. 10. 9. - 10. 18.



다음 주 주요 변수까지

I. 종합 판단

고유가의 부담이 투자과 소비로 번지고 있다

이번 시장은 두 가지 힘으로 읽어야 한다.

하나는 물가를 통해 이어지는 금리 부담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비 상승에 따른 소비 부담이다.

□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국채에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위험한 주식에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

미래 이익에 기대는 기술주가 특히 민감해진다.

□ 생활비가 늘면 기업의 매출도 영향을 받는다

가계는 연료비를 더 내고 다른 지출을 줄인다.

기업은 비용과 매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다.

한국의 수출 호조만으로 내수가 회복되기 어렵다.

이번 10일에 대한 판단

유가 부담이 남은 상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지만 물가 해결의 증거는 아니다.

다음 주에는 금리보다 **금리가 움직인 이유**가 중요하다.

분석 기간은 10월 9~18일이다. 주식·환율은 16일까지, 비트코인 일별 종가는 17일까지 반영했다. 본문은 공개 자료에 기초한 독립적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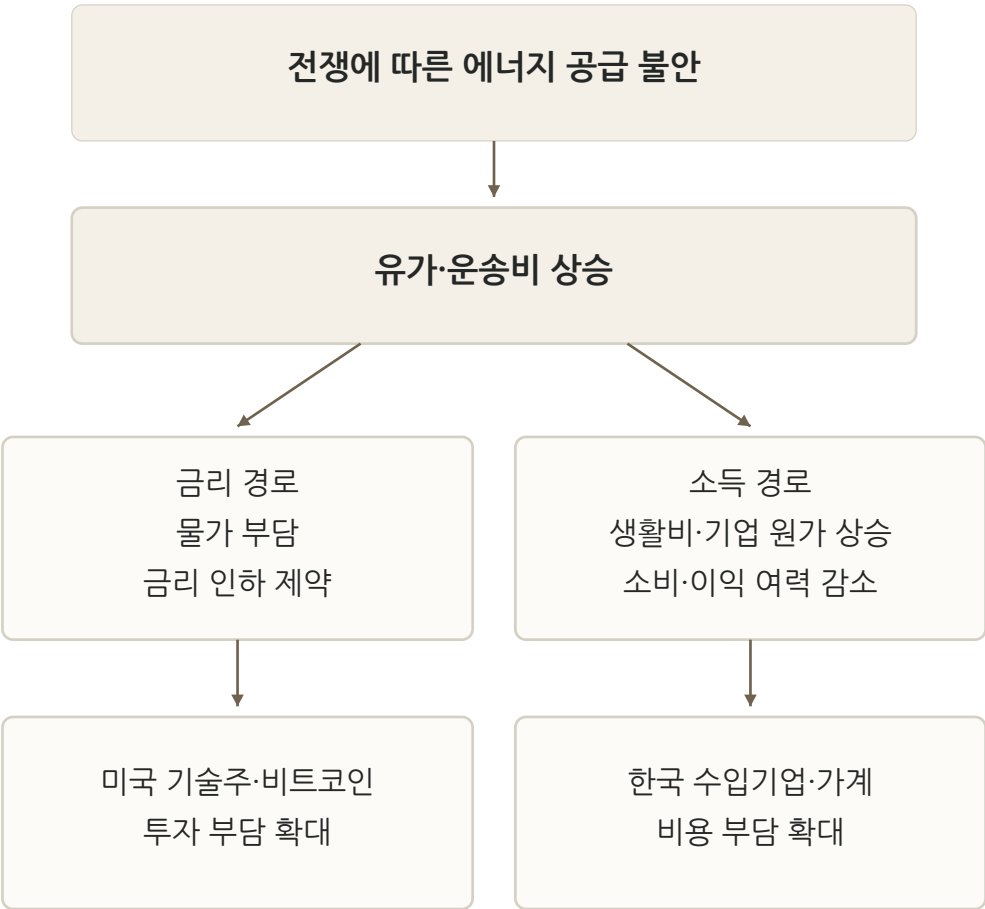
자료: [1][3][4][5][7][10][28]

읽는 순서: 충격의 출발점 → 돈의 이동 → 한국 경제 → 다음 주 판단

I. 종합 판단 | 연결 구조

같은 충격이 서로 다른 경로로 전달된다

아래는 가격을 예언하는 그림이 아니다.
뉴스가 다른 시장에 닿는 경로다.



시장을 더 크게 흔드는 연결고리

외국인의 자금 이동은 한국 주가와 환율을 잇는다.
엔화 빛을 갚는 매도는 여러 자산으로 번질 수 있다.

자료: 일반적 파급 경로를 본 보고서가 재구성. [5][20][29]

먼저, 에너지 공급의 문제가 왜 미국 금리와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II. 충격의 출발점 | 에너지와 물가

고유가는 금리 부담을 오래 끌고 가는 요인이다

□ 확인된 사실: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밀어 올렸다

10월 14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높았다. [1]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사이 **9.1%** 올랐다.

이는 월간 전체 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넘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경유 공급의 불안을 지적했다.

중동의 에너지 시설과 운송로가 위협받고 있다. [5]

□ 파급 경로: 원유보다 넓은 범위에 부담이 생긴다

경유가 비싸지면 물건을 운반하는 비용이 오른다.

기업이 비용을 가격에 넘기면 소비자 부담이 늘다.

넘기지 못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

금리와 연결

금리를 내려도 끊긴 원유 공급이 복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비를 자극하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운 이유다.

물가 전체가 같은 속도로 오른 것은 아니다. 식품·에너지를 뺀 근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2.6%다. 유가 충격이 다른 가격으로 퍼지는지가 다음 판단의 기준이다. [1]

자료: [1] 미국 노동통계국 · [5]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나 물가가 높은데도 미 국채금리는 내려갔다. 금리의 종류와 하락 이유를 구분해야 한다.

II. 충격의 전달 | 미국 금리

금리 하락이 항상 주식의 호재는 아니다

구분	이번에 확인된 수준
연준의 기준금리	3.75~4.00% 9월 16일 결정. 중앙은행이 정한다. [3]
미 국채 10년물 금리	5.24% → 5.09% 10월 9일 → 16일. 시장에서 움직인다. [4]

□ 국채금리는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도 내려간다

기존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가격이 오른다.
같은 이자를 더 비싼 값에 사는 셈이다.
그래서 새 구매자가 얻는 수익률은 낮아진다.

□ 주식에는 금리의 방향보다 하락 이유가 중요하다

물가 안정 때문에 내리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 불안 때문에 내리면 이익 감소가 더 걱정된다.
후자의 경우 주식과 국채금리가 함께 내릴 수 있다.

이번 기간의 해석

기술주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이 함께 나타났다.
이는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과 부합한다.
다만 금리 하락의 원인을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다.

자료: [3] 연준 · [4] 미 재무부 · [7] AP

금리 부담이 남아 있다면, 기업은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보여줘야 한다.

III. 주식시장 | 미국에서 한국으로

AI 투자 규모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중요해졌다

□ 미국 기술주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10월 16일로 끝난 한 주간 나스닥은 **4.5%** 내렸다.

S&P 500은 1.9%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오히려 0.7% 올랐다. [7]

이 움직임만으로 모든 미국 기업이 부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높은 금리는 미래 이익을 기다리는 비용을 키운다

AI 기업은 데이터센터에 먼저 큰돈을 쓴다.

빚으로 투자하면 이자 부담도 생긴다.

수익이 늦어질수록 투자자의 기다림은 길어진다.

국채 이자가 높으면 기다림의 대가도 커진다.

투자자는 같은 미래 이익에도 낮은 값을 매긴다.

다만 현금이 풍부한 기업까지 같게 볼 수는 없다.

한국 반도체와의 연결

AI 기업의 투자 계획은 반도체 주문 기대를 바꾼다.

한국 반도체 주가는 실제 주문보다 먼저 반응한다.

따라서 현재 수출 호조와 주가 하락이 공존할 수 있다.

자료: [7] 미국 주가지수. 파급 경로는 본 보고서의 해석.

이 기대 변화가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매와 환율을 통해 증폭될 수 있다.

III. 주식시장 | 한국 주가와 환율

외국인의 자금 이동은 주가와 환율을 함께 흔든다

□ 이번 한국 시장에서는 큰 하락 뒤 하루 반등이 나왔다

코스피는 10월 15일 하루 **7.57%** 급락했다. [9]

16일에는 2.05% 반등했다. [10]

그래도 10월 8일 종가보다 약 14.5% 낮다. [8]

□ 외국인 주식 매도는 달러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는다.

이 돈을 해외로 옮기려면 달러로 바꿔야 한다.

이때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긴다.

미국의 높은 금리는 달러 자산의 선호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도 돈을 국내에 남길 수 있다. 주식 순매도액과 달러 매수액은 다르다.

□ 환율을 낮추는 힘도 동시에 작동한다

수출기업이 받은 달러를 팔면 원화 수요가 늘는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도 같은 힘을 보탬 수 있다.

16일에는 주가 반등과 원화 강세가 함께 나타났다.

환율 숫자의 의미

원·달러 환율은 15일 1,344.6원이었다.

16일에는 1,331.4원으로 낮아졌다. [10]

달러 1개를 사는 비용이 줄었다는 뜻이다.

자료: [8] 일별 시세 · [9] 뉴스핌 · [10] 뉴스1

주가·환율의 동반 변동이 커질 때는 빌린 돈의 회수도 함께 살펴야 한다.

III. 주식시장 | 엔캐리 청산 위험

빚을 갚기 위한 매도는 좋은 자산에도 번질 수 있다

□ 엔캐리 투자는 싼 엔화 자금을 빌리는 데서 시작한다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한다.
빌린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거래다.
그러나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
엔화까지 강해지면 빚을 갚는 비용도 늘어난다.

□ 청산은 이 거래를 접고 빚을 갚는 과정이다

투자자는 보유 자산을 팔아 엔화를 마련한다.
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움직이면 매도가 몰린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자산도 함께 팔릴 수 있다. [29]

최근 뉴스와 확인 범위

10월 15일 일본은행 위원의 추가 인상 발언이 보도됐다.
엔화 조달 비용을 다시 살펴야 할 이유다. [30]
그러나 이번 한국 급락을 엔캐리 청산 탓으로
확정할 만한 거래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엔화의 급격한 강세와 주식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본다. 겹친다고 청산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고 신호다.

자료: [29] BIS의 청산 메커니즘 분석 · [30] Reuters

돈의 회수는 자산 가격을 흔든다. 반대로 새 돈의 유입은 국채 수요를 만들기도 한다.

IV. 국채와 코인 | 준비금의 연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미국 단기국채의 수요가 된다

□ 미국 정부는 국채를 팔아 필요한 돈을 빌린다

국채 공급에 비해 구매 수요가 부족하면,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이것이 국채 발행과 시장금리가 만나는 지점이다.

미 재무부의 4분기 순차입 전망은 6,280억 달러다. 이는 8월 발표된 전망이며, 이번 10일에 새로 생긴 차입액은 아니다. [15]

□ USDC를 새로 발행하면 그에 맞는 준비금이 필요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1개를 1달러로 돌려주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발행사는 돌려줄 돈을 준비금으로 보관한다.

USDC의 준비금에는 현금과 단기 미국채가 포함된다.
일부는 블랙록이 관리하는 펀드에서 운용된다. [20]

연결은 되지만, 같은 시장은 아니다

USDC 순발행이 늘면 단기국채 수요가 늘 수 있다.
그러나 10년물 국채의 수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장기 차입 부담을 모두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환급이 몰리면 준비금에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발행량뿐 아니라 준비금의
안전성과 환급 능력도 중요하다. [20]

자료: [15] 미 재무부 · [20][21] Circle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 때 비트코인도 함께 오르는가? 두 자산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

IV. 국채와 코인 | 자금의 대기과 투자

스테이블코인 증가가 비트코인 상승을 뜻하지는 않는다

□ 높은 금리는 두 자산에 다르게 작용한다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약정 이자를 주지 않는다.
안전자산 이자가 높으면 투자 매력이 비교된다.
위험을 줄이는 시기에는 매도 압력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목표는 1달러다.
준비금 이자가 보유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 디지털 달러의 보유 목적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유 목적	비트코인과의 관계
매수 준비	매수로 이어져야 호재다.
위험 회피	기존 토큰의 주인만 바뀌면 발행량은 그대로다.
송금·결제	투자 없이 결제용 발행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기간에 실제로 확인된 방향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는 돈이 순유출됐다.
10월 9~16일 합계는 **2억730만 달러**다. [17]
따라서 기관성 자금이 계속 유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 [17] Farside · [20][21] Circle. ETF는 거래소 상장 펀드.

이제 큰 운용사의 이름과 실제 고객 자금의 움직임을 구분해 살펴본다.

IV. 국채와 코인 | 블랙록의 역할

블랙록의 사업 확대와 비트코인 매수는 다른 이야기다

□ 전사 실적은 최근 비트코인 매매를 보여주지 않는다

블랙록은 3분기 고객 자금 순유입을 발표했다.

규모는 회사 전체 기준 **2,050억 달러**다. [18]

주식·채권·현금성 상품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 최근 방향은 해당 상품의 자금 흐름으로 봐야 한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이름은 IBIT다.

10월 9~16일 합계는 **1억4,300만 달러 순유출**이다.

전체 현물 ETF 순유출의 약 69%에 해당한다. [17]

이는 IBIT 설정·환매에 따른 펀드 자금 흐름이다. 블랙록이 자기 돈으로 하락에 베팅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ETF 투자자에는 개인도 포함된다.

□ USDC 준비금 운용 역시 별도의 역할이다

블랙록은 USDC 준비금 펀드도 관리한다. [20]

이는 달러 환급을 위한 자산을 운용하는 일이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판단

공개 자료에서는 현물 ETF의 순유출이 확인된다.

블랙록 자체 자금의 비공개 매수·매도 포지션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자료: [17] Farside · [18] 블랙록 실적 · [20] Circle

해외 자금의 흐름과 별개로, 한국 내부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이를 살펴야 한다.

V. 한국 경제 | 수출과 성장률

수출이 늘어도 가계의 형편은 늦게 좋아질 수 있다

□ 수출 호조 자체는 확인된다

10월 1~10일 수출은 전년보다 **102.0%** 늘었다.

다만 올해는 조업일수가 더 많았다.

하루 평균으로 비교하면 증가율은 **28.5%**다. [11]

이 기간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47%를 차지했다.

강한 수출이 모든 업종의 호황을 뜻하지는 않는다.

□ 성장률 전망은 생산의 합계이지 가계소득이 아니다

OECD는 9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

6월의 2.6%에서 **3.7%**로 상향했다. [12]

이는 이번 10일의 새 발표가 아니라 배경 자료다.

수출의 온기가 퍼지려면

수출기업의 이익이 먼저 늘어야 한다.

그다음 국내 발주·채용·임금이 늘어야 한다.

가계가 쓸 돈이 늘어나 동네 상권도 회복된다.

이 연결은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나 자동화에 지출이 집중되면 국내 고용으로 퍼지는 효과는 작아질 수 있다. 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파급 경로다.

자료: [11] 관세청 · [12] OECD 전망을 소개한 재정경제부

수출의 이익이 천천히 퍼지는 동안, 가계는 고유가와 대출이자의 부담을 먼저 느낀다.

V. 한국 경제 | 체감경기와 정책

체감경기의 회복은 생활비를 뺀 소득에 달려 있다

□ 소득이 늘어도 남는 돈이 늘어야 소비가 회복된다

월급이 올라도 연료비와 이자가 더 많이 늘면,
외식과 쇼핑에 쓸 돈은 오히려 줄어든다.
수출 호조와 차가운 체감경기가 공존하는 이유다.

9월 한국은행의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8.9였다. 장기 평균 100을 소폭 밑돈다.
이 지표 하나만으로 내수 전체를 불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13]

□ 한국은행도 물가와 내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다. [14]
금리를 내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원화 약세가 심해지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물가 대응에 도움이 된다.
그만큼 빚이 많은 가계의 부담은 오래 남는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요소다.

10월 22일 회의에서 읽어야 할 대목

금리 결정뿐 아니라 결정의 이유가 중요하다.
물가·환율을 더 걱정하는지, 내수를 더 걱정하는지
설명을 통해 다음 정책의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

자료: [13][14][25] 한국은행 · [3] 연준

다음 주의 일정은 이 연결 구조 중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읽는다.

VI. 다음 주 점검 | 10월 19~23일

발표 숫자보다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매일 | 에너지 공급과 투자자 자금

중동의 공급 차질과 유가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이후 미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을 본다.

비트코인 ETF는 하루보다 며칠의 합계를 본다.

□ 10월 21일 미국 장 마감 뒤 | 메타·테슬라 실적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메타는 AI 투자비와 수익화 설명이 핵심이다.

테슬라는 수익성·현금흐름·투자 부담을 본다. [23][24]

□ 10월 22일 | 한국은행 금리 결정

고유가와 환율이 정책을 얼마나 제약하는지 본다.

내수 평가가 약해지면 향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다.

금리 변경 여부만으로 호재·악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25]

□ 10월 23일 미국 | 기업경기·소비심리

기업경기 속보지수인 PMI의 주문과 가격 항목을 본다.

미시간대 조사에서는 가계의 예상 물가를 확인한다.

주문은 줄고 가격은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크다. [26][27]

한국 1~20일 수출 잠정치도 확인 대상이다. 통상 21일 전후에 나오므로 관세청 공지로 발표일을 재확인한다. 조업일수 효과를 뺀 증가율이 중요하다. [11]

자료: 10월 18일 확인 기준. 발표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들이 어떤 조합을 보일 때 전망을 바꿔야 하는지 정리한다.

VI. 다음 주 전망 | 조건별 판단

반등의 지속 여부는 물가와 이익을 함께 봐야 한다

**잠정 판단: 아직은 추세 회복보다
불안 속 반등 가능성을 점검할 단계다.**

유가 부담이 남아 있고 기술주와 ETF 자금 흐름도 약했다. 다만 이는 다음 주 하락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다.

1.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

유가가 안정되고 기업의 이익 설명도 개선된다.
금리 부담이 줄어 기술주·반도체 반등에 유리하다.
비트코인은 ETF 유입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2. 물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

공급 차질이 길어지고 예상 물가도 높아진다.
높은 금리가 오래갈 우려가 성장주를 압박한다.
원화 약세가 겹치면 한국의 수입비용 부담도 커진다.

3. 경기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

주문이 줄고 기업의 이익 전망이 낮아진다.
국채로 피한 자금 때문에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
이때 주식·비트코인은 함께 약해질 수 있다.

판단을 바꿀 조건: 유가 안정, 기업 수익 전망 개선, 자금 유입이 함께 이어지면 회복 판단을 강화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상승보다 환급 안정성과 실제 자금의 용도를 본다.

자료: 조건부 분석이며 확률·목표가격을 제시한 예측이 아니다.

참고 1 | 주요 숫자와 비교 기준

수치는 따로 확인하고
본문은 흐름으로 읽는다

항목	수치·기준
브렌트유 선물	109.86달러/배럴 10월 16일 마감 [6]
미 9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7% 10월 14일 발표 [1]
미 9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6.3% 10월 15일 발표 [2]
미 10년 국채금리	5.24% → 5.09% 10월 9일 → 16일 [4]
S&P 500 / 나스닥	7,659.44 / 26,140.03 10월 16일 종가 [7]
코스피	6,625.93 → 5,668.05 10월 8일 → 16일 [8]
원·달러 환율	1,344.6원 → 1,331.4원 10월 15일 → 16일 서울 주간 종가 [10]
비트코인	82,623.6달러 → 81,477.7달러 10월 9일 → 17일 일별 종가 [28]

코스피 비교는 한글날 휴장 직전인 10월 8일부터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므로 주식의 마감 시각과 다르다. 18일의 미완료 일별 종가는 사용하지 않았다.

자료: 원자료·집계사에 따른 시각과 가격 기준 차이에 유의.

참고 2 | 사건 순서와 자금 집계

연관성은 설명하되 원인을 뒤바꾸지 않는다

순서	확인한 사실
10월 12~13일	한국 증시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9월 CPI 발표 전이다. [8]
10월 14일	미국 CPI가 발표됐다. 기존의 물가 부담을 재확인했다. [1]
10월 15일 한국 장	코스피가 7.57% 급락했다. [9] 같은 날짜 미국 PPI 발표보다 먼저다.

□ 현물 비트코인 ETF 순유입·순유출

단위: 백만 달러. 음수는 순유출이다. [17]

미국 거래일	전체 ETF	IBIT
10/9	+21.1	+22.4
10/12	-65.4	-65.4
10/13	+175.7	+65.9
10/14	-261.4	-110.9
10/15	+5.1	+16.8
10/16	-82.4	-71.8
합계	-207.3	-143.0

자료: [1][2][8][9][10][17]. 순유입액은 집계 수정 가능.

미 재무부가 10월 16일 공개한 국제자금 통계는 8월 자료다. 이를 10월의 외국인 국채 매매로 해석하지 않았다. [16]

자료 | 출처 1/2

근거 자료와 읽는 범위

번호는 본문의 자료 표시와 같다.

각 자료명을 누르면 원문을 열 수 있다.

[1] 미국 노동통계국 | 9월 소비자물가 · 10/14

[2] 미국 노동통계국 | 9월 생산자물가 · 10/15

[3] 미 연준 | 9월 16일 기준금리 결정

[4] 미 재무부 | 10월 일별 국채금리

[5] 국제에너지기구 | 10월 석유시장 보고서

[6] Reuters | 10월 16일 원유 선물 마감

[7] AP | 10월 16일 미국 주요 주가지수

[8] Investing.com | 코스피 일별 종가

[9] 뉴스핌 | 10월 15일 한국 증시 급락

[10] 뉴스1 | 10월 16일 한국 증시·환율

[11] 관세청 | 10월 1~10일 수출입 잠정치

[12] 재정경제부 | OECD 9월 전망 설명 · 9/23

[13] 한국은행 | 9월 기업경기·경제심리

[14]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15] 미 재무부 | 4분기 국채 순차입 전망 · 8/3

발표일과 대상 기간을 구분했다. OECD 9월 전망·한국은행 9월 심리·미국 4분기 차입 전망은 배경 자료다. 최근 10일의 신규 발표처럼 다루지 않았다.

자료: 조회·작성 기준: 2026년 10월 18일, 한국 시간.

자료 | 출처 2/2

근거 자료와 읽는 범위

번호는 본문의 자료 표시와 같다.

각 자료명을 누르면 원문을 열 수 있다.

[16] 미 재무부 | 8월 국제자금 통계 · 10/16 발표

[17] Farside Investors | 현물 BTC ETF 일별 자금

[18] 블랙록 | 2026년 3분기 실적 · 10/14

[19] iShares | IBIT 상품·순자산 정보

[20] Circle | USDC 준비금·환급 구조

[21] Circle | USDC 상품 설명

[22] 미시간대 | 소비심리·예상 물가

[23] Tesla | 실적 발표 일정

[24] Meta | 10월 21일 실적 발표 안내

[25] 한국은행 | 2026년 금통위 일정

[26] S&P Global | 10월 속보 PMI 안내

[27] 미시간대 | 10월 23일 확정치 일정

[28] Investing.com | 비트코인 일별 시세

[29] BIS | 엔캐리 청산의 파급 경로 · 2024/8

[30] Reuters | 일본은행 위원의 인상 발언 · 10/15

사실은 공개 자료를 따랐다. 파급 경로와 전망은 본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정 기관의 공식 발간물이 아니며, 개별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자료가 아니다.

자료: 조회·작성 기준: 2026년 10월 18일, 한국 시간.